

추락하는 항공株...버핏마저 '손절매' 8

포스코 최정우의 '식량안보' 선견지명 12

코스피(3일 전주 대비) ▲ 1725.44 (+7.71P)
코스닥 ▲ 573.01 (+50.18P)
환율(달러당 원화) ▲ 1230.90 (+20.3원)
금리(국고채 3년물) ▲ 1.066% (+0.006%p)

얼어붙은 벤처 투자 유니콘에 '버블 그림자'

스페셜 리포트

3월 벤처투자 2900억으로 '뚝' 대기업도 투자 꺼려 더 '암울' 적자에도 외형 키운 '유니콘' 제때 투자 못받으면 도산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벤처투자 시장과 스타트업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먼저 벤처투자 증가에 제동이 걸렸다. 5월 벤처투자 통계 플랫폼 더브이씨(The VC)에 따르면 1, 2월 각각 3200억 원, 3400억 원을 기록한 월별 벤처투자 규모가 3월에는 2900억 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여파에 투자 미팅이 줄고, 투자 결정도 보수적으로 기운 영향이다.

문제는 2분기부터 더 암울하다는 점이다. 실제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기업마저 일단 현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4대 은행의 3월 대기업 대출 규모는 전월 대비 7조9780억 원 늘어난 71조3388억 원이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글로벌 인수합병(M&A) 시장도 꽁꽁 얼어붙고 있는 실정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대기업마저 현금 확보 비상에 걸리면서 투자 업계가 완전히 얼어붙고 있다"며 "스타트업들이 세워둔 투자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처음으로 벤처투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투자액은 4조2777억 원으로 이는

역대 최고 규모였던 2018년 3조4249억 원 대비 25% 늘어난 것이다.

외국계 VC 업체 관계자도 "약속된 투자 건이 아예 취소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스타트업들이 코로나19 이전 밸류에이션만큼 평가받지 못하면서 투자 유지액도 줄고 있다"며 "커머스 업종 외에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를 하긴 해도 건수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유니콘들은 매출 확대에 집중하며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4년 만에 영업적자를 냈다. 우아한형제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국내 음식 배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광고·마케팅 비용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2018년에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낸 쿠팡은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미 지난 5년간 누적적자는 3조 원에 달한다. 쿠팡은 2017년에 6388억 원, 2018년에 1조 97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에는 물류센터에 지속적인 투자를 단행했고, 쿠팡이츠와 같은 신산업 투자도 진행했다.

이 같은 유니콘들의 적자에 관해 시장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시장을 선점하고 확대하기 위한 전략 차원으로 풀이하곤 했다. 그러나 VC 업계가 얼어붙는다면 추가 투자 유치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셈이다. 추가 투자를 담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투자를 받기 위해 외형만 키운 유니콘이 탄생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치만 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유니콘이 얼마나 탄생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외형은 커졌는데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미래의 유권자도 귀 쫑긋...표심은 어디로

시민들이 5일 21대 총선에 출마한 한 후보의 거리 유세 현장에서 후보의 연설을 들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신태현 기자 holjjak@

“키코 배상보다 보상” 은행 편든 은성수

〈금융위원장〉

‘피해기업 보상案 제시’ 뒤늦게 확인 윤석현 금감원장 배상 결정과 배치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기업들을 대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측에 '배상'보다 '보상'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은성수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를 앞두고 가진 키코 공대위의 면담에서 은행 상품 판매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배상안이 아닌, 적법한 행위를 전제로 손실을 보존해주는 차원의 보상을 제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키코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가 '기술적인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일각에서는 은행 5곳(신한·산업·하나·대구·한국씨티)이 키코 피해와 관련, 총 213억 원의 배상 권고안을 놓고 금감원에 반기를 든 현상이 금융당국 수장의 결정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은 위원장은 지



난해 11월 키코 사태와 관련된 금감원 분조위 결과가 나오기 직전 키코 공대위의 면담에서 윤석현 금감원장의 배상 결정과 정면 배치되는 입장을 전달했다. 키코 사안을 놓고 양 기관의 첨예한 갈등이 현재 진행형이란 분석이다.

해당 면담에서 은 위원장은 “은행권이 배상이라는 단어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니 자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했다. 키코 공대위는 분조위 결과가 곧 발표되기 때문에 무조건 배상안으로 가야 한다고 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은 위원장은 “당시 면담에서 배상안과 보상에 대해 얘기한 기억이 없다. 그때 공대위가 ‘확답은 없었지만 경청해줬다’라고 언론에 말했듯이 그것이 전부였고, 대출 등 다른 방법으로 도울 길이 있는

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배상안에 강한 거부 입장을 내세우는 이유는 배상과 보상이 가지는 법률적 의미에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배상은 행위자의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용어다. 구체적으로는 행위자의 위법적 행위로 남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일을 말한다. 은행들이 배상안을 받아들이면 키코 상품 판매의 불법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또한, 금감원 분조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나머지 147개 기업에도 모두 배상을 완료해야 한다.

반면, 보상은 행위자의 적법한 행위에 의해 특정인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는 것을 말한다. 은행들이 보상을 받아들여도 키코 상품 판매가 적법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보상 기준과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보상 의무가 없음에도 기금을 조성해 피해 기업들을 돕는다는 시혜적 의미에 더 가깝다. ▶10면에 계속

나경연 기자 contest@

강남 재건축 아파트 2억~3억 '뚝'

4월 첫 주 0.31%↓...수·용·성 '풍선효과'로 매매가 급등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발(發) 경기 하강 우려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꺾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규제를 피해 수도권으로 발길을 돌렸다. ▶관련기사 17면

5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4월 첫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31% 하락했다. 2013년 6월 이후 6년 10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올 들어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월평균 0.2%씩 값이 빠지더니, 연초보다 0.82% 가격이 하락했다. 올해 일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까지 0.77% 올랐다. 상승세는 유지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상승세가 둔화했다.

강남권 재건축 대어 단지도 가격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3㎡형은 이달 들어 시세가 20억5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지난달만 해도 이 아파트 호가는 23억 원까지 나갔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6단지 전용 82㎡형 시세도 20억5000만 원에서 18억8000만 원까지 하락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시장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선행 지표로 여긴다. 투자 수요가 많아 시장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2010년대 초에도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된 집값 하락이 1~2개월 후 아파트 시장 전체로 옮겨갔다.

서울 부동산 시장 수익성이 떨어지자 경기 남부에선 풍선효과(비규제지역 집값이 오르는 현상)가 일어났다. 올해 수원 아파트값 오름폭은 2.60%로 서울의 세 배가 넘었다. 용인(1.92%)과 성남(1.56%), 의왕(1.44%)에서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서울을 웃돌았다.

박종화 기자 pbell@

위기의 자영업자...신용불량 작년 이미 3.6만명

올해 코로나 사태로 급증 예상

신용불량 상태가 돼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운 자영업자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만6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신용불량 자영업자가 급속히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나이스신용평가가 5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김중석 미래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기업대출(자영업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자영업자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만5806명이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금융회사에서 50만 원을 초과하거나, 50만 원 이하 2건의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사람으로, 2005년까지 '신용불량자'란 표현으로 불렸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이 중단되는 등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가 끊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대출을 받은 사람은 209만5166명이다. 비율로 보면 50명 중 1명꼴로 금융채무 불이행 상태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2분기 3만3292명, 3분기 3만5567명, 4분기 3만5806명으로 증가했다. 가계대출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자영업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등급은 95.0%(3만4009명)가 7등급 이하다. 또 3명 중 2명은 연소득이 3000만 원을 밑돌았다. 특히 대부업체 등 비제도권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게 문제다. 대부업체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재된 자영업자는 5961명으로 2분기보다 28.7%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1분기엔 자영업자의 금융 상황이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국민의 외부활동이 급격히 위축돼서다.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90% 가까이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영업자들의 도산이나 폐업을 막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정책자금이 인공호흡기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현재 연 1.5% 수준의 초저금리로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코로나19' 관련 2·6·8·9·12·15면



· 사회적 거리두기 · 함께 나누기
· 서로 배려하기 · 바이러스 바로 알기

유통업계, 판로 막힌 농가에 '구원투수' 등판

현대백 '무안 양파' 증정 행사
신세계, 화훼농가 돕기 나서
홈플러스·BGF리테일 등
대구·경북지역 기부 줄이어



현대백화점은 5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6일부터 전국 15개 점포 식품관에서 전남 '무안 양파'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고 밝혔다.

유통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섰다. 유통업계는 판매가 부진한 농가의 농산물 판매 촉진에 앞장서는가 하면 대구·경북지역에 소득제와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농가 돕기 나선 백화점 업계 = 현대백화점은 6일부터 압구정본점 등 전국 15개 전 점포 식품관에서 사은품으로 전남 '무안 양파'를 증정한다고 5일 밝혔다. 양파를 제공받으려면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현대백화점 식품관에서 당일 구매한 영수증만 보여주면 된다.

보통 사은품은 상품 변질 위험 때문에 주로 생필품을 증정하는데, 이번처럼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설명이다. 현대백화점은 이번 행사를 위해 총 15

톤의 무안 양파를 매입했다. 양파는 점포별로 1000개(1kg·4입) 한정으로 제공된다. 아울러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전국 15개 전 점포 식품관에서 '봄의 맛, 봄의 마음' 행사를 열어 30여 종의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30~50% 할인해 판매하고, 8일부터 12일까지는 고창 민물장어를 40% 할인된 1만2000원(마리당)에, 청송 사과(5kg)는 40% 할인된 1만1000원에 판매한다. 13일부터 19일까지는 '지정 농장 상품전'을 열고 화식한우 등 정육을 기존 판매가에서 최대 30% 할인해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본점을 비롯한 전국 17개 점포에서 '경북 농축산 농가돕기 소비촉진 장터'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공판장과 대형 시장이 휴장하면서 판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성·정도지역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는 설명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입학식이 취소되고 결혼식이 연기되면서 어려움에 빠진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달 전국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꽃 화분을 나눠주는 행사를 열었다.

◇대형마트·편의점은 대구 지역 기부 행렬 = 홈플러스 사회공헌재단 e파란재단과 신한카드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어린이들과 취약

계층을 위해 손 소독제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 물량은 2만여 개로, 대구지역 100여 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대구·경북지역 10여 개 지역주민센터, 아름다운 도서관 입점 사회복지관, 경주·경산시청,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됐다.

조현구 홈플러스 e파란재단 사무국장은 "홈플러스 1호점이 탄생한 고향이기도 한 대구가 빠르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CU(씨유)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대구지역 가맹점주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 등을 위해 4월 한 달 동안 판매된 도시락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이번 기부 캠페인은 BGF리테일 대구영업부 임직원과 가맹점주들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논의한 끝에 기획됐으며, 대구지역 50여 명의 가맹점주들이 가까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소식이 알려지면서 본사 측도 가맹점의 한 달 누적 모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회사가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을 통해 힘을 보태기로 결정했고, 임직원 봉사활동 단체도 물품 기부로 동참한다.

아성다이소도 대구광역시 의료진에 행복박스를 전달했다. 지원 품목은 물티슈와 보디워시, 일회용 밴드 등 위생용품과 안마기, 손목보호밴드 등 건강용품 등으로 구성된 행복박스 500여 개다. 아성다이소는 올해 2월 초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광주의 격리자들에게 생필품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 2월 말 대구에 마스크 1만5000개를 긴급지원하는 등 나눔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과기부, ICT 장비·사무실 임대료 최대 100% 감면

산하기관 입주기업 부담 줄여... EBS 라이브 강의 무료 시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정보통신 기술(ICT) 기업 장비와 사무실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ICT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요 ICT 사업지원기관의 장비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납부 유예 등 기업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지원기관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정

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구미전자정보기술원(GERI) 등이다.

이번 조치로 ICT 사업지원기관의 10개 시설이 보유한 장비 사용료를 일정 기간 감면(10~100%) 또는 납부 유예함으로써 ICT기업의 장비 활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 일부 시설 내 입주기업의 임대료도 인하(100%)해 코로나19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 극복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ICT 비·R&D 신규 공모사업 중 총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부담금 비율도 5~20% 인하여 공모사업 참여기업의 민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코로나19 대응 ICT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해 기술료 감면 등 ICT 기업을 지속 지원해 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교육부, 유료방송사, EBS와 함께 6일부터 진행되는 EBS 라이브 강의를 포함한 초·중·고 학년별 학습 콘텐츠를 채널별로 전문화해 모든 유료방송사(IPTV, 케이블TV, 위성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는 IPTV는 물론,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을 시청 중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TV를 통해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EBS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사상 초유의 전국 초·중·고교 순차적 온라인 개학을 사흘 앞둔 가운데 과기정통부 산하 KAIST(카이스트)는 디지털 기술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 중

·고교 교사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KAIST는 본원 캠퍼스가 위치한 대전 유성구 소재의 38개 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간 쌍방향 화상 원격수업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 교육을 3일 실시하는 한편 학부모와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온라인 수업 지원단'을 구성해 7일부터 29일까지 약 한 달간 운영에 들어간다. 지원을 요청하는 학교마다 1~2명씩 배정해 교사들의 원격 수업 준비와 수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 및 불편 사항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원단의 활동비 전액은 KAIST가 모두 부담할 방침이다. 이재훈 기자 yes@

따뜻한 마음이 모여 봄이 됩니다

환자 걸음으로 향하는 의료인들의 발걸음,
달려와 방역을 서두르는 믿음직한 두 손,
감싸주고 안아주는 진심 어린 눈빛.

모두의 마음이 모이면, 봄이 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현대백화점그룹



‘유니콘 마중물’ 모태펀드, ‘3.3兆짜리 거품’ 되나

우려되는 ‘제2벤처붐’ 정책

스타트업 시장에 ‘버블(거품)’ 붐과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제2벤처붐’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10호(무신사)·11호(에이프로젠제약) 유니콘 기업이 연달아 나오면서 국내 스타트업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결과다.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는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20개 이상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K-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차기 유니콘 기업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000억 원의 모태펀드를 출자해 2조 5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펀드에는 5200억 원을 출자해 9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점프업 펀드에는 3800억 원을 출자해 9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투자 금액을 단계별로 나눠 유니콘 기업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려고 벤처캐피탈에 출자하는 방식의 펀드를 말한다.

지난달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올해 3조 30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 신청이 접수돼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렵게 조성된 벤처투자 열기가 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VC들이 적극적으로 투자 활동 의지를 보이는 것은 희망적인 신호”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모태펀드 출자 신청 경쟁이 곧 VC 투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기부, 2022년까지 20여곳 목표 민관 합동 ‘벤처 육성’ 닷 올렸지만

코로나로 투자시장·기업매출 하락 큰손 ‘소프트뱅크’마저 자산 매각 우버 등 굴지 벤처도 속속 버블 조심

모태펀드를 받아간다고 해서 당장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펀드 운영은 수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라며 “당장 다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타트업 투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큰 틀에서 모태펀드 신청 경쟁률은 높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달리 현실이 희망적이지 않은 않다. 최근 ‘벤처 투자의 큰손’으로 알려진 소프트뱅크의 자산매각 결정도 업계의 우려를 더한다. 최근 일본 최대 IT 투자기업인 소프트뱅크그룹은 4조 5000억 엔(약 51조 70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충격에 국내 스타트업도 불안에 떨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1호 유니콘인 쿠팡은 소프트뱅크의 비전펀드로부터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에 총 30억 달러를 투자받았다. 소프트뱅크 그룹이 국내에 설립한 VC인 ‘소프트뱅크벤처스 아시아’가 국내에서 집행한 투자 금액은 총 2450억 원에 달한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당근마켓, 쏘카, 트레버리 등 총 8곳에 373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VC 업체 수석 심사역은 “소프트뱅크의 자산 매각으로 국내 투

자를 하는 해외 파트너들은 더욱 투자를 보수적으로 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2분기부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나치게 고평가된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가 크게 낮아질 수 있고, 1분기는 그나마 선방하겠지만 2분기부터는 이 같은 경향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판교 소재 바이오 스타트업 이사는 “4월부터 투자자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란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으며, 실제 투자자들을 만나보면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실적 악화로 기업 가치가 떨어진 우버, 에어비앤비의 사례는 스타트업의 버블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며 “시장에 맡겨도 버블이 생기는데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 확대’ 기조는 자칫 마중물이 아닌 버블을 키우는 것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마중물” 이상의 공급은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를 과대 평가하게 만들 수 있고, 기업 가치가 과대 평가되면, 민간 VC들이 들어오기 더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이디원 기자 leedw@

국내 주요 유니콘 기업 투자 현황
(단위: 달러) ※ 출처: CB인사이트

회사	투자 시점	주체	규모	투자사 국적
쿠팡	2014년 5월	세쿼이아캐피탈	1억	미국
	2014년 12월	블랙록	3억	미국
	2015년 6월	소프트뱅크	10억	일본
	2018년 11월	소프트뱅크비전펀드	20억	일본
위메프	2019년 9월	넥스	2억9365만	일본
	2019년 12월	IMM인베스트먼트	1억	한국
비바리퍼블리카(토스)	2018년 12월 ~ 2019년 8월	클라이너퍼킨스크펠드&바이어스	1억4400만	미국, 홍콩 등
		싱가포르투자청(GIC)		
		베세머벤처스파트너스		
		세쿼이아캐피탈 차이나		
무신사	2019년 11월	굿워터캐피탈	1억7000만	미국
		에스펙스매니지먼트		
아놀자	2019년 8월	KT	2000만	한국
		부킹홀딩스		
		싱가포르투자청(GIC)	1억8000만	싱가포르

‘정부 지원정책’ 전문가 의견은

“투자유치 위한 외형확장은 필수” “경쟁력 없는 머니게임 경계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벤처투자 시장과 스타트업계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전문가들은 이견 없이 동의했다. 다만 국내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기업)들에 관한 진단과 정부의 지원 방향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먼저 유니콘의 외형 확장은 필수 불가결하다는 쪽과 외형 확장보다 내실을 기하는 방향이 맞다는 주장이 공존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유니콘이 되기 위해 초기에 발생하는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자를 안 내고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작은 사업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흑자를 내더라도 사업이 정체하면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금 시장이 어렵다 보니 대규모 투자를 유지하겠다는 생각보다 성장을 천천히 하더라도 살아남아야겠다는 모드로 전환하는 것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유니콘의 외형보다 내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쿠팡, 배달의민족, 아놀자 등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전하려면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플랫폼 자체에만 기대면 경쟁이 심화했을 때 쉽게 도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에 스타트업계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모태펀드의 경우 정부의 출자 규모 확대에서 벗어나 정부의 출

자 비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일반적인 모태펀드에서 정부 출자 비중은 60%다. ‘점프업 펀드’의 경우 정부 출자 비중은 40%다.

임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작년까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큰 결림들이 생겼다”며 “모태펀드의 경우 정부가 1조 원 넘게 출자를 한다고 해도, 40%를 민간이 채워야 하는데 현재 시장이 어려워 결성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급격한 ‘공급 확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스타트업에 자금이 과도하게 공급되면 몇 년 뒤 부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기술과 사업성을 기반으로 벤처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자칫 ‘머니 게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당장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 스타트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를 독려하는 것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 비중을 높인다든지 하면 더 낮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진 않다”며 “또, 정부의 모태펀드 확대는 스타트업 육성 기능이라기보다 직접 투자의 관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여행, 레저, 숙박 등 업종은 지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어, 투자 독려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특별 보증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지금은 마음의 손을 잡을 때

함께 손잡고 걷던
일상의 소중함을 이제서야 배웁니다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서로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국민 모두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분명,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의 손을 맞잡은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인데... 여론조사 20%P 차이

하루 평균 5.8건 조사 쏟아져
결과 들쭉날쭉... 유권자 혼란
ARS 방식 중도층 응답률 낮아
조사 방법·질문 방식서도 편차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각종 선거 여론조사가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조사기관마다 결과가 들쭉날쭉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5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까지 21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는 총 851건에 달한다. 올해 이후 등록된 것만 추려도 자그마치 557개에 달한다. 올해 들어 하루 평균 5.8건의 총선 여론조사가 쏟아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선거철을 맞아 우후죽순 여론조사가 쏟아지지만 결과는 고무줄처럼 제각각인 상황이다. 조사마다 차이가 크다 보니 유권자들은 어느 조사 결과를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 자체의 신뢰성에도 금이 간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최근 2주간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상당한 편차가 나타난다. 4·15 총선의 최대 관심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구의 경우 MBN와 매일경제신문 의뢰로 알앤씨지가 3월 23~25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7.2%,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33.8%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종로구 거주 만 18세 이상 53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P)). 비슷한 시기인 3월 23~24일 시사저널 의뢰로 모노커뮤니케이션즈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양 후보의 지지율이 각각 48.5%와 36.6%였다.(종로구 거주 만 18세 이상 522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 앞의 조사에서는 후보 간

격차가 23.4%P였던 반면 뒤의 조사에서는 후보 간 격차가 11.9%P에 불과하다. 광진을, 구로를 등 복수의 조사가 이뤄진 다른 선거구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구의 경우 그나마 편차가 작은 편이다. 정당지지율 조사에서는 조사기관에 따른 결과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경향신문 의뢰로 매트릭스리서치가 3월 27~28일 시행한 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46.4%, 통합당의 지지율은 22%로 양당 지지율 격차가 24.4%에 달한다(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그런데 같은 기간 시민일보 의뢰로 조원씨앤에이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민주당 34.5%, 통합당 31.4%로 양당 격차가 3.1%P에 불과하다(전국 만 18세 이상 1013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각 정당의 신생·난립한 비례대표 선거용 정당 지지율 조사의 경우 편차가 더욱 심해진다. 심지어 3일 간격으로 같은 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조차도 7%P 가까운 편차를 보이는 예도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기관마다 들쭉날쭉한 것은 조사 방법이나 표본 구성, 질문 방식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질문이라도 문장이나 표현에 따라 응답자들의 태도가 크게 달라지곤 하는 데다, 평일인지 주말인지, 유선전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도 결과가 영향을 받는다. 특히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일 때와 상담원이 직접 묻는 방식일 때도 결과가 확연히 다를 수 있다. 통상 ARS 방식의 경우 중도층 응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영세 조사기관 등이 ARS 방식을 보편화하면서 '강성 지지자'들의 여론이 과잉대표되는 한편 중도층의 표심은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유충현 기자 lamuziq@

지난 총선 '종로' 정세균 vs 오세훈 정, 지지율 17%P 차이 뒤집고 승리

여론조사 역대 '오답' 사례
은평을 민주당 강병원, 이재오 눌러
새누리 부산 전승 예상 깨고 6곳 敗

여론조사의 '오답률' 이해를 거듭할수록 상승세다. 하지만 정치권과 언론은 여전히 여론조사에 기댄다. 선거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의 불일치가 매년 반복되는 이유다. 역대 선거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가 불일치한 사례를 정리해 본다.

지난 총선은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 결과 불일치 사례가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서울 종로에서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의 패배를 예측하지 못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오 후보가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길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 후보는 오 후보보다 12.9%포인트 이상 지지를 얻어 승리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는 45.8%, 정 후보는 28.5%로 조사됐다. 무려 17.3%포인트 차이로 오 후보가 압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 후보 52.6%, 오 후보 39.7%로 정 후보의 승리였다.

서울 은평구에서는 강병원 민주당 후보가 이재오 무소속 후보를 눌렀다. 당시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 후보의 낙승을 예상

했다. 이 밖에 부산에서 새누리당은 여론조사에서 압승이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새누리당이 6개 지역구를 잃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하나같이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확실시된다고 공표했지만, 결과는 민주당의 제1당 등극이었다. 20대 총선 직후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밖의 큰 오차로 빛나기까지 '여론조사 무용론'이 본격적으로 언급된 것도 이때부터다.

2014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가 다른 사례가 속출했다. 서울 동작을 나경원 의원의 예상과 달리 고 노회찬(정의당) 후보에 1.2%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승리를 거뒀다.

2010년 지방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사례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는 50.4%, 한명숙 민주당 후보는 32.6%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이는 17.8%포인트로 역시 오차범위 밖의 압승이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여론조사와 달랐다. 당시 오 후보는 208만6127표(47.43%)를 얻었다. 한 후보는 예상과 달리 205만9715표(46.83%)를 득표해 막판 초점전을 벌였다. 두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0.6%포인트였다. 정용욱 기자 dragon@

후보	지지율	언론매체	여론조사기관	조사기간	신뢰도	조사대상
이낙연 중도층 황교안	51%	39%	V.O.K	3월 31일	95% 신뢰수준에 ±3.5%	종로구 거주 만 18세 이상 801명
	48.3%	35%	TV조선	3월 26일	95% 신뢰수준에 ±4.4%	종로구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
	57.2%	33.8%	MBN&매일경제	3월 23~25일	95% 신뢰수준에 ±4.3%	종로구 거주 만 18세 이상 530명
48.5%	36.6%	알앤씨	3월 23~24일	95% 신뢰수준에 ±4.3%	종로구 거주 만 18세 이상 522명	
고민정 광진을 오세훈	45.1%	35.2%	중앙일보	3월 27~28일	95% 신뢰수준에 ±4.4%	광진을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
	47.1%	43.3%	YTN	3월 28~29일	95% 신뢰수준에 ±4.3%	광진을 거주 만 18세 이상 509명
	44.3%	43.9%	MBN&매일경제	3월 23~25일	95% 신뢰수준에 ±4.3%	광진을 거주 만 18세 이상 522명
43.3%	39.3%	시사저널	3월 23~24일	95% 신뢰수준에 ±4.4%	광진을 거주 만 18세 이상 505명	
유건영 구로를 김영태	45.7%	31.2%	TV조선	4월 1일	95% 신뢰수준에 ±4.4%	구로를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48.3%	30.2%	MBN&매일경제	3월 23~25일	95% 신뢰수준에 ±4.3%	구로를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46.8%	28.6%	시사저널	3월 23~24일	95% 신뢰수준에 ±4.3%	구로를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이영우 고양정 김현아	49%	31.6%	SBS	3월 28~30일	95% 신뢰수준에 ±4.4%	일산서구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
	47.8%	38.8%	YTN	3월 28~29일	95% 신뢰수준에 ±4.3%	일산서구 거주 만 18세 이상 513명
	동대문을 장경태 이혜은 민병두	31.3%	28.3%	SBS	3월 28~30일	95% 신뢰수준에 ±4.4%
35.6%		28.2%	KBS	3월 29~30일	95% 신뢰수준에 ±4.4%	동대문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
아수진 동작을 나경원		46.4%	41.6%	TV조선	3월 30일	95% 신뢰수준에 ±4.4%
	50.4%	38.6%	MBN&매일경제	3월 23~25일	95% 신뢰수준에 ±4.3%	동작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524명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민생당	언론매체	여론조사기관	조사기간	신뢰도	조사대상
24.7%	21.5%	12.6%	8.7%	5.2%	2.7%	뉴비씨	조원씨앤에이	4월 1~2일	95% 신뢰수준에 ±3.1%	1000명
23%	21%	10%	8%	5%	2%	한국갤럽	한국갤럽	3월 31일~4월 2일	95% 신뢰수준에 ±3.1%	1002명
31%	23%	11%	9%	6%	3%	미디어오늘	리서치뷰	3월 29~31일	95% 신뢰수준에 ±3.1%	1000명
32.9%	22.5%	15.5%	7.7%	5.3%	2.4%	쿠키뉴스	조원씨앤에이	3월 28~30일	95% 신뢰수준에 ±3.1%	1000명
26.1%	19.9%	6.8%	9.2%	4.1%	4%	없음	한길리서치	3월 29~30일	95% 신뢰수준에 ±3.1%	1010명
24.4%	20.4%	11.9%	13.5%	5.3%	0.6%	SBS	인스스	3월 28~29일	95% 신뢰수준에 ±3.1%	1001명
32.7%	18.6%	15.3%	7.2%	5.4%	1.8%	시민일보	조원씨앤에이	3월 27~28일	95% 신뢰수준에 ±3.1%	1013명
19.8%	18.6%	11.8%	14.9%	6.3%	1.3%	경향신문	메트릭스리서치	3월 27~28일	95% 신뢰수준에 ±3.1%	1000명
23.2%	28%	5.3%	10.7%	5.7%	0.2%	KBS	한국리서치	3월 20~23일	95% 신뢰수준에 ±2.8%	1199명
32.3%	26.9	12.6%	7.4%	6%	1.7%	데일리안	알앤씨	3월 22~24일	95% 신뢰수준에 ±3.1%	1008명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YOS

필승코리아아드

필승코리아 시즌2
우량 채권의 안정성을 더한 필승코리아 30(채권 혼합)펀드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겠습니다

필승 코리아 펀드는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산업 및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우량 기업에 투자합니다

필승 코리아 30펀드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주식에 30% 이내로 투자하고 채권을 더해 안정성을 키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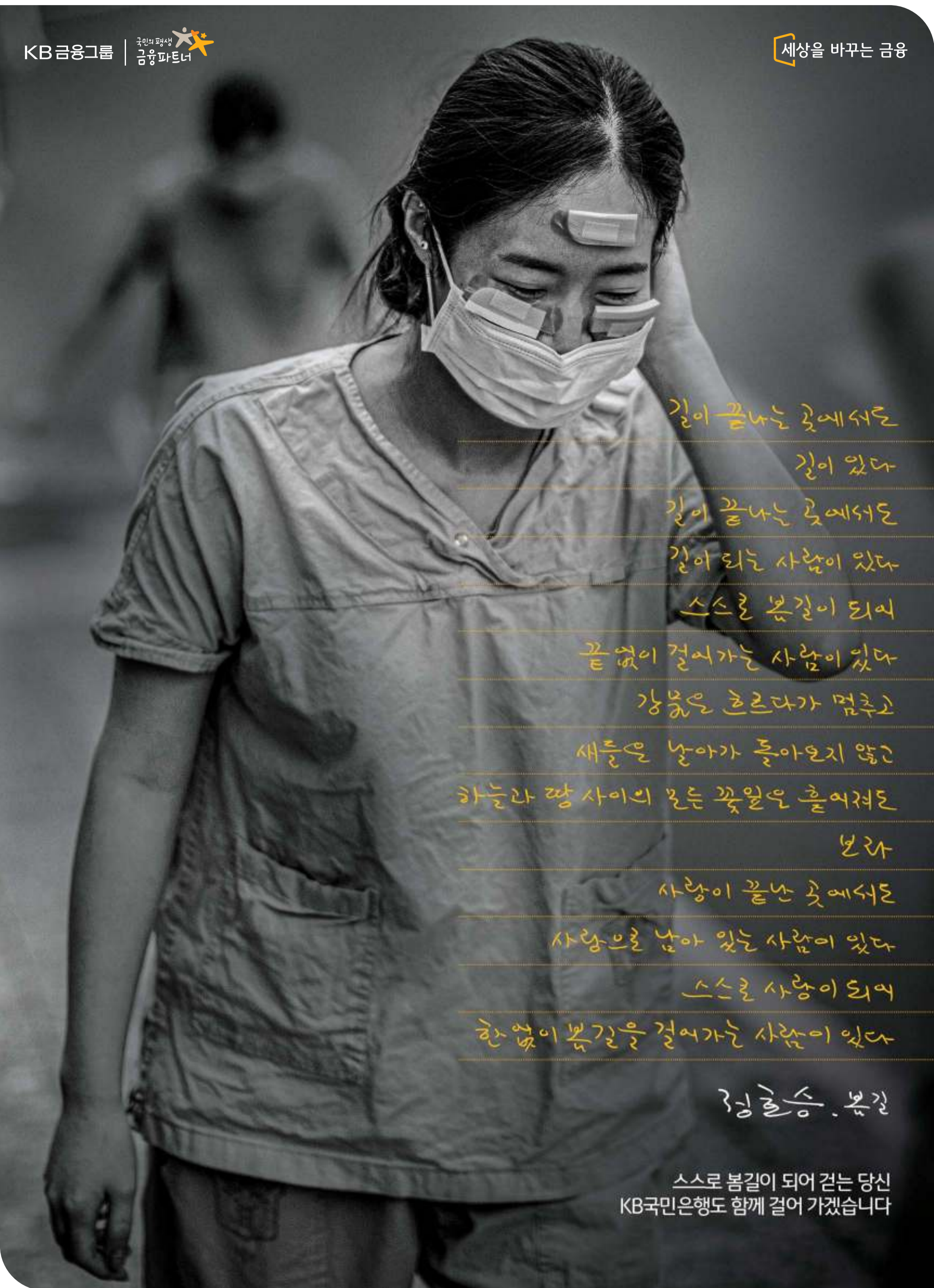
필승 코리아 펀드는 운용보수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관련 대학 및 연구소에 지원합니다

※ 이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지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는 펀드기업을 결정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 투자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수 및 수수료 외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0-00835호(2020.02.27~2021.02.26) ※ 환매방법 : 15시 30분 이전(경과 후) 환매청구 : 23(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4)영업일에 지급 ※ 보수 및 수수료 : Class A : 총보수 0.877% (판매 0.340%, 운용 0.500%, 기타 0.037%), 납입금액의 0.5% 이내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없음 ※ 운용회사 : NH-Amundi자산운용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길이 끝나는 곳에 서든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 서든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한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를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날려

본다

사랑이 끝난 곳에 서든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김혜승 . 봄길

스스로 봄길이 되어 걷는 당신
KB국민은행도 함께 걸어 가겠습니다

트럼프 'OPEC+ 중재' 무산되자 '관세 으름장'

“저유가, 일자리 위협엔 관세부과”
美 에너지업계 보호대책 만지작
러·사우디에 유가전쟁 종식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유가 폭락으로 위기에 처한 자국 에너지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원유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 브리핑에서 최근 저유가 기조와 관련해 “이 가격은 미국의 수많은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수만 명의 에너지업계 근로자들과 그 일자리를 만드는 위대한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면, 해야 할 일은 무엇 이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미국 에너지 업계 경영진과 회동한 뒤에도 “현재로서는 관세를 부과할 생각이 없다”

산유국 유가안정 노력

<p>3월 6일 • OPEC+ 감산 협상 결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우디·러시아, 증산 및 가격 인하 등을 통한 유가 전쟁 발발 	<p>4월 3일 • OPEC+ 원유 가격 안정 위해 6일 화상 회의 열기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럼프, 미 에너지업체 경영자들과 회의
<p>9일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해 국제 에너지 시장 논의</p>	<p>4일 • 사우디·러시아, 지난달 OPEC+ 감산 협상 불발에 대한 책임 공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PEC+ 긴급 화상회의, 6일에서 9일로 연기 트럼프 “저유가가 일자리 위협하면 관세 부과” 엄포
<p>31일 • 트럼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해 유가안정 방안 등 논의</p>	



면서 “사용 가능한 수단”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국제유가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 합의 기대감에 이를 연속 폭등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지난 2일 24.67% 상승한 데 이어 3일에도 11.9% 뛰여 28.34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전쟁’ 당사국인 사우디와 러시아가 최대 1500만 배럴의 감산에 합의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가 상승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석유수출

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10개 산유국의 연대체인 OPEC플러스(+)가 유가 안정을 위해 화상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감산 합의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OPEC의 협조 감산에 불만이 컸었다. 지난해 말에도 그는 OPEC의 감산 조치에 대해 수차례 불만을 쏟아낸 바 있다. 작년 11월 12일에는 “유가는 공급을 기반으로 훨씬 더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12월 5일에는 “세계는 더 높은 유가를 보길 원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등 유가

인하를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최근 유가 폭락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180도 돌변했다. 채산성을 맞추려면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이상은 되어야 하는 미국의 셰일오일 산업이 이번에 저유가 폭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폭락하는 유가를 떠받치기 위해 ‘유가 전쟁’ 당사국인 사우디와 러시아 사이에 급히 개입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OPEC+ 긴급 화상회의를 제안하는 성과도 얻어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국 에너지 업체 최고경영자(CEO)들과 가진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갖고, “빈 살만 왕세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두 세계 석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중재에도 사우디와 러시아의 진통은 계속됐다. 양측은 유가 전쟁 촉발의 원인이 된 지난달 6일 OPEC+ 감

산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상대국에 미루면서 공방을 벌였다. OPEC+ 긴급 화상회의도 당초 6일에서 9일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OPEC+ 회원국인 아제르바이잔 에너지부는 4일 “OPEC이 회의를 9일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며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저유가가 미국의 일자리를 위협하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렇지만 아직 미국 내 고용시장은 코로나19로 쑥대밭이 됐다. 미노동부는 3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70만1000개 감소했다고 3일 발표했다. 신규 일자리가 감소세를 보인 것은 2010년 9월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미국의 실업률은 사실상 ‘원전고용’ 상태로 평가되는 3%대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 해고가 잇따르면서 113개월 연속되던 미국 일자리 시장의 최장기 호황에도 공식적으로 마침표가 찍혔다. 변효선 기자 hsbyun@



트럼프 “참혹한 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코로나19 태스크포스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뭔가 불만족스러운 듯 입을 삐죽거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사이가 가장 힘든 주가 될 것이다. 아마도 가장 힘든 주가 될 것”이라 말하고, “미국은 ‘치명적 시기, 참혹한 시기’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종류와 같은 (사망자) 숫자를 일찍이 보지 못했다”며 세계대전 때 사망자 수에 비교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獨 “트럼프, 20만장 빼들려... 현대판 해적” 美, 우방 뒤통수친 ‘마스크 쟁탈전’

3M 마스크 캐나다 수출길 막아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마스크 확보 노력이 집착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해 마스크 생산 확대를 강제하고, 특히 3M에 대해서는 마스크 수출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서 트위터에 “3M이 수출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대가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3M은 3일 성명에서 “마스크 수출 중단 조치는 다른 나라의 보복을 유발할 수 있다”며 “그런 일(보복)이 일어난다면 미국이 확보할 수 있는 마스크는 오히려 줄어 우리가 원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성명을 내고 “의료용품을 포함해 필수적인 물자의 무역을 중지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사태 초반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는 마스크 착용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미국 내 감염자가 급증해 인공호흡기와 마스크 부족이 심각해지자 마스크 착용에 관한 지침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기자회견에서 외출 시 무조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겠다고 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며칠 안에 지침을 내놓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침이나 재채기 증상이 있을 때만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지만, 앞으로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착용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행정부는 공권력과 핏수까지 동원해 마스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DPA까지 발동해 3M에 수출 금지를 명하자 이런 정부의 압박에 델타항공과 엑스모빌 같은 비전문 기업들까지 자발적으로 마스크 생산에 참여했다. 3일 델타항공은 자회사 델타항공프록트에서 안면을 가리는 페이스실드, 엑스모빌은 마스크와 안면보호대를 생산해 각각 지역 의료기관에 보내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태국 방콕공항에서 독일로 향하던 대량의 중국산 마스크를 가로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베를린 주 정부는 4일 성명에서 “시 경찰이 미국 기업에 발주한 20만 장의 마스크가 태국 방콕공항에서 누군가에게 빼앗겼다”며 “여기에 미국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대판 해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추락하는 항공株... 버핏마저 반값 ‘손절매’

델타항공 주가 한 달여 만에 반토막... 3억1400만 달러어치 매각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사진) 버크셔해서웨이 회장도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야기한 극도의 불안장세 여파는 피해가지 못한 모양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버크셔는 3일(현지시간) 미국 항공 대기업 델타항공의 주식을 일부 매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말만 해도 버크셔는 델타항공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는데, 약 한 달 만에 투자 판단을 바꾼 것이다. 이는 가치주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장기 보유하는 ‘가치 투자자’ 버핏으로서 이례적인 결단이라는 평가다.

이날 버크셔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1~2일 델타항공 주식 1300만 주 가량을 약 3억1400만 달



러에 내다 팔았다. 주당 평균 거래 가격은 24.19달러다. 앞서 버크셔는 2월 27일에 델타항공 주식 97만6000주를 약 4530만 달러에 매수했고, 당시 평균 단가는 주당 46.40달러였다. 불과 한 달 사이에 큰 손실을 보고 지분을 대폭 줄인 셈이다. 다만, 버크셔는 델타항공 지분율이 11%에서 9%로 낮아졌을 뿐, 여전히 대주주 지위는 유지하고 있다.

닛케이에 지금까지 투자 판단을 잘

못해 매각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단기간에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한 사례는 드물다고 평가했다.

버크셔와 버핏은 이번 델타항공 주식 매각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2월 델타항공 주식을 매입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환경이 격변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항공사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인의 여행 취소, 기업체의 출장 자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구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지원을 받게 되면 한시적으로 자사주매입이 제한된다. 정부나 의회의 경영 간섭이 강해지는 것 또한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버핏 회장이 당분간 주가 상승을 전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닷케이는 분석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맥주’ 생산중단

멕시코 정부 “비필수 업종 운영 중단”

멕시코 맥주 대기업 그루포모델로가 ‘코로나 맥주’를 비롯한 주류 생산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4일 CNN이 보도했다.

그루포모델로는 전날 회사 트위터에 “멕시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필수품 공급을 제외한 기업 활동을 금지해 5일부터 생산을 중단키로 했다”고 전했다. 코로나 맥주 수출처는 180개국이며, 멕시코 국내에 11개의 양조 공장이 있다.

지난달 30일 멕시코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공공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제 활동 등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그루포모델로 제품의 미국 수입 및 판매를 담당하는 컨스텔레이션브랜즈 측은 “소비자 수요에 맞는 재고는 충분하다”며 “폭기 우려

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코로나 맥주는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 넣은 바이러스 ‘코로나19’와 이름이 같아 우려를 샀다. 소셜미디어에서 코로나 맥주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일시돼 2월 말에는 컨스텔레이션브랜즈 주가가 이를 새 12%나 빼지기도 했다. 올해 초 200달러 넘던 주가는 현재 13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다.

다만 CNN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맥주의 매출은 비교적 순조로웠다고 지적했다. CNN에 따르면 월 1분기 컨스텔레이션브랜즈의 맥주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모델로’와 ‘코로나’가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루포모델로는 조기 생산 재개를 위해 자사를 필수 산업으로 각인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회사는 “맥주는 업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수출용 주요 농산품”이라고 강조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의 씨앗 될 것”

경제학자들 ‘격리·봉쇄·휴교’ 영향 분석

100여년 전 ‘스페인 독감’ 때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도시 사망자 줄여 독감 종식 후 고용 4% 늘며 경제활동 증가 더 신속하고 강하게 추진한 곳일수록 도시기능 회복 빨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의 풍경이 달라졌다. 봉쇄와 격리, 휴교와 재택근무가 일상 이 됐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각국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에 나서면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어선 재난적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경제 활동이 위축되더라도 공중 보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활절 정상화를 목표로 ‘셧다운’ 해제를 공언했던 것도 경제를 더는 희생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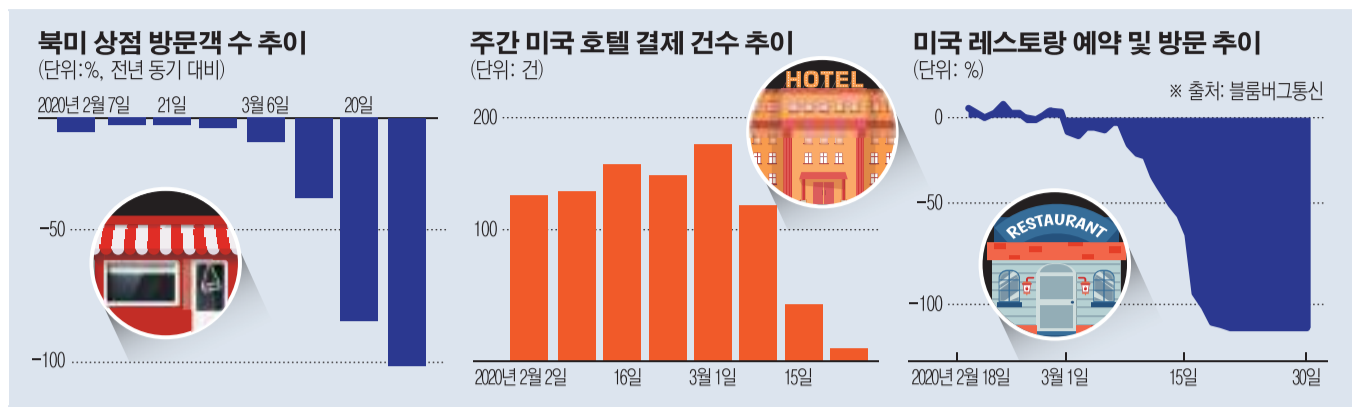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공중 보건을 위해 경제를 희생한다’는 전제를 뒤집는 논문이 발표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세르지오 코레이아, 스테판 러크,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에밀 버너 등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공중 보건의 물론 경제적 관점에서 이로운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당장은 위기로 여겨지지만 멀리 보면 경제 성장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3명의 이코노미스트가 주목한 것

은 1918~1919년 전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이다. 1918년 미국에서 최초로 독감 환자 발생이 보고 됐다. 이후 1919년까지 유럽, 미국,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약 6억 명이 감염됐고, 사망자는 최소 5000만 명에 이른다. 현재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매우 근접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의 전염력이 스페인 독감과 거의 동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코레이아, 러크, 버너 등 세 이코노미스트는 1918년 9월 8일에서 1919년 2월 22일 사이, 43개 도시가 취한 정책을 비교 분석했다. 놀랍게도 100여년 전 이들 도시가 취한 감염병 대응법은 약물치료가 아닌 격리 및 학교와 사업장 폐쇄 등을 통한 공중 보건 개입을 뜻하는 ‘비약학적 개입(NPIs, Non-Pharmaceutical Interferences)’ ,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였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의 속도와 정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빨리 또 적극적으로 채택한 도시들과 그렇지 않은 도시들을 비교 분석했다.

43개 중 34개 도시가 휴교와 집회 금지 등의 조치를 적절히 섞어 평균 4주간 시행했다. 15개 도시의 경우 격리와 봉쇄, 휴교



와 집회 금지 모두를 강력하게 실시했다.

비교 분석 결과, 격리 정도 및 기간과 독감 사망자 수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PIs가 강력하고 길수록 사망자가 더 적었다.

이들은 공중 보건에 미친 영향 분석에서 한 발 더 들어가 독감에 따른 사망자 수 차이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들여다봤다. 논문에 따르면 1917년 사망률(10만 명당 416명)에 비해 1918년 독감 대유행으로 사망률이 증가하면서 제조업 분야 고용이 23% 줄었다. 전체 생산량은 18%나 감소했다. 독감이 강타한 도시의 경제가 상당

한 타격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NPIs 정책을 도입한 도시에서 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빠르게 도입한 도시의 경우, 독감 대유행이 끝난 후 고용이 4% 증가했다. 기간이 더 길었던 곳에서는 고용이 6%나 뛰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초기에 적극적으로 채택한 도시에서 경제 충격이 완화했고, 사태 진정 후 더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공중 보건을 위해 경제를 희생하는 게 결코 아니란 의미다.

논문은 “봉쇄, 격리, 외출 및 집회 금지

등으로 직접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됐지만, 대규모 사망자 발생 사태를 피해 결국 경제 활동을 증가시켰다”고 결론 내렸다.

물론 분석의 한계도 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도시들이 애초 더 나은 공중 보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염병 확산 방지와 경제 정상화가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의 길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보건과 경제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코로나發 ‘4차 산업혁명’ 가속도

병원·마트·방역 분야 로봇 활약 가상현실 통해 관광 명소 체험 재택 확산에 화상회의 앱도 주목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의 한 병원에서 로봇 간호사 ‘토미’가 환자를 돌보고 있다. AFP 연합뉴스

위기 속에도 기회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상이 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봉쇄와 격리, 휴교와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관련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우선 병원·마트·방역 분야에서 비대면 로봇의 활약이 커지고 있다. 독일 최대 슈퍼마켓 체인 에데카의 린들라르 지점에는 쇼핑객과 대화하는 안내 로봇이 등장했다. 애초 로봇 간호사로 개발된 이 로봇은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실제 현장에 투입된 로봇 간호사도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유럽 진원지로 불린 이탈리아의 북부 롬바르디아 지역 병원에는 감염 환자들을 돌보는 로봇 간호사가 등장했다. ‘토미’라 불리는 이 로봇은 롬바르디아주 바레세의 시르콜로 병원에서 일한다. 이 병원에는 토미를 포함해 총 6대의 로봇이 근무 중이다. 이들 로봇 간호사는 의료진이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횟수를 줄여 의료진 감염률을 낮출 수 있다. 로봇 간호사들은 인간 간호사와 달리 방호복이나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 의료 물품 부족 대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와 방호복 수요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감염 우려도 없다. 워싱턴D.C.에서는 음식 배달 로봇도 등

장했다. 워싱턴 지역 슈퍼마켓인 브로드브랜치마켓이 도입한 배송 로봇은 주문 물품을 싣고 스스로 배송을 완료한다.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 있는 웨스턴휴스턴메디컬센터는 병실 위생 관리를 위해 두 대의 로봇을 들였다. 살균 로봇 생산업체 제넥스디스인텍션서비스가 생산한 이 로봇은 미국 400개 이상의 병원에서도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제는 자외선 진동을 이용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곰팡이를 죽인다.

가상현실(VR) 기술 활용도 늘고 있다. 이동 제한에 발이 묶인 고객들을 위해 VR을 활용한 여행업체가 등장했다. 고객들이 집에서 앱을 통해 유명 관광명소나 박물관 등을 가상으로 둘러볼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한 질레 홍보 민간단체가 개발한 ‘질레 360도’라는 무료 앱은 이스터섬의 고대 조각상과 파타고니아 빙하 등을 VR로 보여준다.

전 세계 기업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화상회의 앱 ‘줌(Zoom)’이 일약 스타로 주목받고 있다. 줌은 현재 미국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순위 1위, 영국에서는 2위에 각각 올랐다. 김서영 기자 0jung2@

노란우산은 KBIZ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 연 최대 500만 원 소득 공제
- 공제금 납부 금지
- 중장기 목돈 마련
- 연 복리 이자 지급

마음 똑 놓고 오래오래~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씁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세법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과 법인기업의 대표자 중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Google play /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KBIZ 중소기업중앙회

신한·하나·대구銀 ‘키코 분쟁조정안’ 거부 가닥

오늘이 수용여부 결정 마감시한
안건 논의 이사회 일정도 못 잡아

외환과생상품 키코(KIKO) 사태에 대해 은행들이 배상 수용 여부를 사실상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6일까지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하는 은행들이 이날 오전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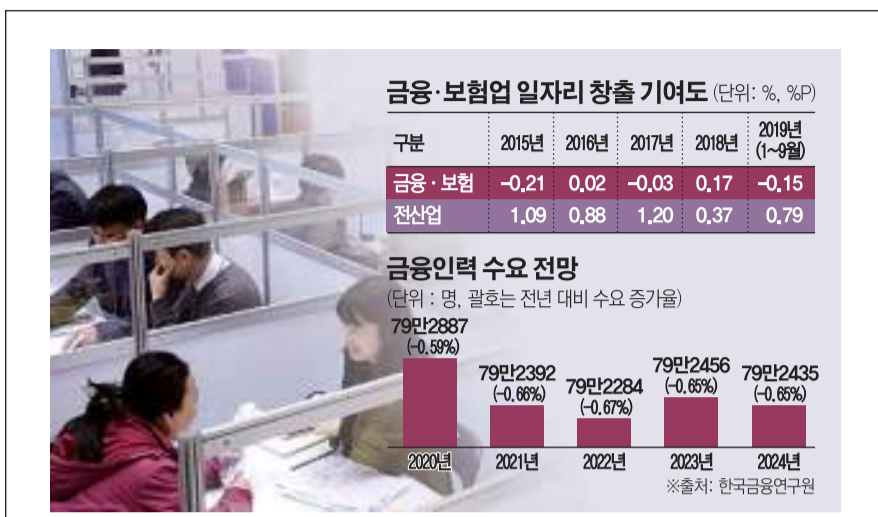
6일 키코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 수용 결정시한이 다가왔지만, 아직 해당 은행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이날까지 키코 분쟁조정안에 대한 결론을 금융감독원에 밝혀야 한다. 이미 은행들은 3차례나 수용 여부 마감 시한을 연기했다. 현재까지 키코 배상안을 수용한 은행은 우리은행 한 곳뿐이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신한·하나·대구은행도 분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에 대해 다시 배상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

다. 여기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수용 거부를 밝힌 상황에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수용할 수 없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은 얼마 전 이사회 멤버를 3명이나 교체했다. 키코 배상안과 관련해 이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판단을 내리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했을 것이다.

이들 3개 은행은 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 일정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배상 불가’로 결론을 내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수락하지 않더라도 은행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편,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 등 6개 은행에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피해금액의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순이었다. 또 나머지 145개 피해 기업에 대해서 분쟁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의 자율조정(협의 권고)을 의뢰했다. 김범근 기자 nova@



“2024년까지 年 5134명씩 줄어든다”

금융권, 일자리 창출 ‘낙제점’

2019 금융인력 기초통계

1~9월 취업자 수 80만명
경제 한파에 전년비 4.85% ↓

지난해 금융권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낙제점’을 받았다. 산업구조 개편과 대규모 퇴직 등이 맞물려 앞으로 5년간 매년 금융권 일자리가 5000개씩 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한국금융연구원이 금융위원회에 낸 ‘2019년 금융인력 기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금융과 보험업 취업자 수는 79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4.85% 줄었다.

일자리 창출 기여도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0.15%다. 전 업종 가운데 제조업(-0.34%) 다음으로 가장 낮다.

기여도는 2018년 금융업 호조에 플러스(0.17%)로 돌아섰지만, 작년 금융권이 ‘경제 한파’에 대비해 몸집을 줄이면서 1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 연구소는 2024년까지 금융인력이 매년 5134명씩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증가율로 따지면 매년 0.59~0.67%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최근 5년간의 고용탄력성 하락세를 반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연평균 0.42%씩 증가하던 금융권 취업자 수는 2015년부터 줄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연평균 1.17%씩 감소했다.

고용탄력성으로 환산하면 -0.27%다. 금융업 부가가치가 1% 성장할 때, 취업자 수는 0.27% 줄었다는 얘기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 결과는 단기적으로 금융권 인력 수요가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기술발전으로 인한 산업 구조 개편과 대규모 퇴직 등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국민銀, ESG채권 4000억 발행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 지원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금융지원 목적으로 4000억 원 규모의 ESG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ESG채권이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개선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번 채권은 KB국민은행의 ESG경영 차원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채권(Social Bond)으로 발행됐다.

발행 규모는 4000억 원, 만기는 1년이다. 발행 금리는 2일 AAA은행채 민평(1.22%)대비 7bp 낮은 1.15%로 결정돼 ESG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KB국민은행은 2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약 1조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금번 조달 자금도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등 사회적 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 자금을 조달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및 사회적 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2018년 글로벌 인증업체인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로부터 지속가능채권 발행을 위한 인증을 취득한 후 2018년 10월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지속가능 외화 선순위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2월과 7월에도 국내 최초의 지속가능 외화 후순위채권 및 외화 신종 자본증권을 각각 발행했다.

서지연 기자 sjy@

은행 편든 은성수 금융위원장

▶1면서 계속

실제로 은행들은 이사회 회의에서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가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달 5일 금감원 분조위 배상안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기업 중 금감원이 제시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원 판결에 비추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가 입수한 씨티은행의 2월 13일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박진희 씨티은행장은 “일부 배상안에 따라 경우 배상을 못 받는 업체 쪽에서 이의를 제기할 가능

성이 있고, 일괄 거절할 경우 키코 공대위에서 계속 이슈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후 박진희 은행장은 3월 4일 열린 이사회에서 “일종의 사회적 기여라는 측면에서 배상이 아닌 보상이라는 개념이 보다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들은 6일까지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 역시 씨티은행처럼 배상안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은행 자율협의체 참여를 내세우며 키코 사태를 종결지를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앞서 금감원은 키코 판매 은행들이 분조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 기업들에 대한 배상 금액을 협의체를 거쳐 자율조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자율협의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은행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DOUZONE
더존비즈온

www.wehago.com

대한민국 기업을 위하고! 원격근무 성공을 위하고! 재택근무 통합패키지 무상제공

- 본 서비스는 ICT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기간: 2020. 06. 30까지)
-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의 소통과 협업에 특화된 12가지 서비스만 선별하여 업무 단절이나 보안 문제 없이 효율적인 원격근무 통합패키지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 WEHAGO 홈페이지(www.wehago.com)에서 신청하시고, 회원가입 후에는 바로 업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빈틈없는 재택근무를 위한 12가지 무상제공 서비스</p> <p>원격접속, 화상회의는 물론 심지어 팩스, 문자서비스(세종텔레콤 협력)까지 무료! 한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없는 기업 업무환경을 12가지 서비스가 그대로 구현해줍니다.</p>	<p>내 PC 원격접속</p> <p>언제 어디서나 사무실의 서버 또는 PC에 접속하여 원격 화면을 보여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원격 PC의 자료를 관리합니다.</p>	<p>채팅&메신저(WE톡)</p> <p>조직과 업무 단위로 그룹 대화방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정보와 파일을 공유하고, 쪽지, 화상회의, 투표, 일정 공유, 웹오피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 전용 메신저입니다.</p>	<p>화상회의</p> <p>국내와 해외 어떤 지역이라도 PC와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화면과 문서를 공유하며 다자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p>	<p>문자서비스</p> <p>거래처, 연락처와 연계되어 고객 및 거래처 그룹을 관리하고 대량 일괄발송 등 문자 기반의 다양한 마케팅 도구를 제공하는 기업형 메시지 서비스입니다.</p>	
	<p>팩스</p> <p>팩스기가 없어도 인터넷 팩스를 통해 수신되는 팩스 내용을 읽고 빠르게 확인하고,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p>	<p>메일(1G)</p> <p>개인 메일은 물론 회사 메일까지 통합 관리하고, 간편하게 회사의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 전용 메일 서비스입니다.</p>	<p>전자결재</p> <p>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결재 양식을 제공하고, 모바일과 PC를 통해 비대면 요청과 가능하며 재택근무 환경에서도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p>	<p>웹오피스</p> <p>한국, 역설, 파워포인트, 워드 등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는 웹 기반 오피스입니다. 이제 설치해서 쓰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기밀정보관리</p> <p>조직도를 통한 직원검색, 수명주기 검색, 연락처의 통합관리 및 자동 업데이트/공유, 다양한 타인의 회사계산서 등 기본정보 관리 기능이 제공됩니다.</p>
	<p>WE드라이브(10G)</p> <p>회사 내 파일과 문서를 동료들과 쉽게 공유하고 검색하며, 웹 오피스를 통해 편집하고 열람할 수 있는 기업용 파일저장소입니다.</p>	<p>일정관리</p> <p>일정 초대와 공유 캘린더를 통해 동료들과 업무 일정을 공유하고, 일정과 관련된 위치, 자료, 태그, 참석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협업합니다.</p>	<p>할일관리</p> <p>해야 할 업무, 진행 중인 업무, 종료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자는 지시한 업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p>		

※한국어, 영어, 일본어 3가지 언어를 지원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신한카드의 3 초



초연결



예상치 못한 연결로 뜻밖의 감동을 드립니다

신한 PayFAN

초협력



우리의 데이터로 누군가의 성공을 도와드립니다

MySHOP # Partner

초확장



그동안 카드가 하지 못한 일로 새로운 경험을 드립니다

My 송금

이런 세상을 당신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도록
신한카드, 초월하는 가치를 만들다

초연결

상품 서비스와 마케팅을 연결,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초협력

고객,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나갑니다

초확장

업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차원의 미래 금융을 선도합니다

※준법감시 심의필 제 20191223-Exn-001호(2019.12.23)

쌍용차 '마힌드라 철수설' 일축... 자산 팔아 '급한 불' 끈다

**2300억 신규 지원 철회
인도 차 판매 88% 급감 영향
일회성 자금 400억만 투입
경영 정상화엔 5000억 필요
부산물류센터 매각 현금 확보**

대주주인 인도의 마힌드라가 추가 투자 중단을 결정하면서 쌍용자동차가 신규투자 유치,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독자적인 자구 안 마련에 나선다. 일각에서 '철수 가능성' 까지 제기됐으나 쌍용차는 이를 일축했다. 5일 쌍용차는 공식 입장을 통해 "마힌드라 그룹의 신규자금 지원 차질에도 현재 미래경쟁력 확보와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경영쇄신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물류센터를 비롯한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다양한 현금확보 방안을 마련해 단기 유동성 문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인도 마힌드라 그룹은 현지시간으로 3일 오후 특별 이사회를 열고 쌍용차에 신

규 자본 투입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극단적인 위기에 몰린 가운데 마힌드라 역시 이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달 마힌드라의 인도 시장 판매는 전년 대비 88%나 급감했다. 앞서 마힌드라는 올 초까지만 해도 쌍용차 노사가 향후 3년간 회사 재건에 필요하다고 산정한 5000억 원의 자금 가운데 2300억 원 투자 계획을 내비쳤다. 파란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은 1월 방한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이 같은 계획을 언급했고, 2월에도 인도 현지에서 쌍용차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자 이사회를 통해 이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힌드라 측은 "쌍용차 노조가 코로나19로 촉발된 예기치 못한 위기를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신 마힌드라는 최대 400억 원의 일회성 자금을 쌍용차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마힌드라의 신규 플랫폼 무상 이용 △지출 절감 방법 지원 △재비절

감 프로그램 지원 △신규 투자자 모색 지원 등을 돕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포기하고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까지 언급됐지만, 쌍용차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마힌드라가 400억 원의 단기 자금을 투입하고 신규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로 한 점이 철수 가능성을 불식시킨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쌍용차 관계자는 "변함없이 관계를 유지하며 쌍용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확인했다"고 풀이했다. 앞으로 쌍용차는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영 쇄신 작업도 지속하며 현재의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방침이다. 먼저, 부산물류센터 등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확보해 단기 유동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경영정상화에 사용할 5000억 원은 향후 3년간 장기적으로 필요한 자금인 만큼, 마힌드라의 지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복지 중단과 축소에 이어 재무구조 개선, 인건비 절감까지 포함하는 고강도 경영 쇄신책도 지속한다. 유창욱 기자 woogi@



쌍용차 이사회 의장인 파란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이 1월 16일 방한해 산업은행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고엔카 사장은 이날 이동걸 산은 회장을 만나 2300억 원의 투자계획을 포함한 회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두 달 뒤인 지난 3일 이 계획을 철회했다. 연합뉴스

GS칼텍스, 베트남 석화 저장기지 확보

KPX Vina 지분 10% 투자

GS칼텍스가 고속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 공략에 고삐를 죄고 있다. 현지 석유화학 저장 시설에 선제적인 투자를 단행해 안정적인 판매 거점을 확보하고 베트남은 물론 아세안(ASEAN) 석유화학 시장의 확대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5일 GS칼텍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작년 12월 31일 베트남 내 석유화학 제품 저장 시설을 보유한 KPX Vina의 지분을 10% 확보했다. 이번 투자는 베트남 석유화학 시장을 공략하려는 GS칼텍스의 선제적인 베팅으로 풀이된다. 베트남은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 인프라가 부족해 대부분의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베트남 관세청에 따르면 베트남의 대(對)한국 플라스틱 원료 수입량은 95만4271톤이며, 수입 규모는 1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화학 제품의 수입 증가에도 이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GS칼텍스는 베트남의 저장 시설 부족 상황에 대비하고자 미

리 베트남 내 저장 시설을 보유한 KPX Vina에 지분 투자를 단행해 안정적인 판매 거점을 마련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KPX Vina 지분 투자를 통해 지분율만큼의 저장 시설 우선 사용권을 확보했다"며 "향후 KPX Vina의 저장 시설 증설시 지분율 만큼의 저장 시설 사용이 확장되며, 석유화학 제품 판매도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GS칼텍스는 지난해 베트남 1위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리믹스의 자회사 페트로리믹스 사이공(Petrolimex Saigon)과 베트남 주유소 운영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현지 시장 진출의 물꼬를 텃다. 페트로리믹스는 베트남 내 5200여 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베트남 주유시장 1위 업체로, 63개에 달하는 베트남 내 모든 행정구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다. GS칼텍스는 협약에 따라 페트로리믹스 사이공과 오랜 기간 국내 석유시장에서 쌓은 주유·정비·세차 사업 등 주유소 운영 노하우와 IT 인프라 등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LG전자, 사이니지·태양광 점유율 확대 추진

올레드 등 프리미엄 전략 강화

LG전자가 정체상황에 있는 B2B(사업자 간 거래) 사업의 두 축인 사이니지(상업용 디스플레이), 태양광 패널 사업에서 점유율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5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사이니지 시장에서 LG전자의 점유율은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사이니지 시장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10.3%) 점유율을 기록했던 LG전자는 바로 다음 해 12.5%를 달성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12%대에 머물러 있다. 태양광 패널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LG전자는 2016~2019년 글로벌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점유율 1%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LG전자는 사이니지·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리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운다. 사이니지 시장에서 선보인 투명 올레드(OLED) 사이니지는 고객이 디스플레이에 표현되는 상품 관련 정보를 보면서, 화면 뒤편에 있는 해당 제품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백라이트가 없어 두께가 얇을 뿐만 아니라 선명한 화질을 자랑한다.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는 미국 공식 안전인증기관인 UL로부터 인정받은 양면발전 태양광 모듈을 통해 점유율 상승을 노린다. 최대 520W(와트) 출력 성능을 지원하는 양면발전 태양광 모듈은 전면에 흡수되는 빛 외에 지면에 반사되는 빛까지 후면에서 흡수해 발전량이 우수하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BELLEVILLE 1766.1535

“디지털 성범죄자 최고 무기징역”

검찰, 구형 기준 대폭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일선청 배포 'n번방' 강도 높은 처벌 예상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자에 최고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n번방 핵심 피의자인 조주빈(25)을 비롯한 공범들이 '숨방망이'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선청에 배포하고 이번 주 중 시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n번방 사건 주요 혐의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은 물론 배포·소지한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1조 위반)에 대해 구형량을 현행법상 최저한도 이상으로 높일 방침이다.

대검의 이번 조치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검찰 구형이나 법원 양형이 국민의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은 2017년 273건에서 2018년 54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범죄의 심각성도 고려됐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영리목적으로 유포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그 외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검찰의 구형량은 '숨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음란물유포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유포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전모 씨에게 3년 6개월을 구형해 비판이 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도 법정형은 높지만

구형을 무기징역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 작량 감경이 적용되면 형량의 절반까지 깎일 수도 있다”며 “엄벌에 처하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가이드라인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 기준상 가중요소를 발굴하고, 감경요소는 고려가 덜 되도록 해 법원에서 구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 제정에 나서는 등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에 합당한 수위의 처벌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7년 1년간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성범죄자의 최종심 무기징역 평균 형량은 징역 3년 2개월에 불과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달 20일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조안을 마련해 상반기 내로 선고형 기준을 세울 방침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지하철에서도 '거리 두기' 휴일인 5일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한 대구시의 지하철 1호선 객실이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지하철 객실 바닥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좌석에 앉을 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대학가, 등록금 환불 대신 장학금 논의

학생들에 재정 보조 검토

국내 주요 대학이 온라인 강의 장기화로 거세지는 등록금 환불 요구에 별도의 장학금 지급을 결정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학가에 따르면 중앙대는 지난달 27일 학생 대표와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강의 연장 및 등록금 환불 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중앙대 관계자는 “등록금 환불은 규정상 어렵고 대신 별도의 장학금 지급을 논의해 학생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 한다”면서 “다만 이러한 재정적 보조수단에 대한 지급 규모와 시기 등은 여러 방안을 가지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균관대도 최근 학생 대표자들과 만나 이와 비슷한 논의를 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에서 학생들이 장학금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장학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외대도 관계자도 “등록금 환불을 넘어 장학금 등 재정적 보조를 해달라는(학생들의)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대학도 있다.

이달 3일 동명대는 재학생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계명대와 대구대도 재학생 전원에게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계명대는 '생활지원 학업장려비' 명목으로 학부·대학원 재학생 2만3000여 명에게 각각 20만 원을 지급하며, 대구대는 1만7000여 명의 재학생에게 10만 원씩 코로나 극복을 위한 특별 장학금을 지급한다.

황인성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법적으로 현 상황에서 대학이 등록금 일부를 환불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헌재 “1억 이상 빚돈 받은 금융사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청탁 없어도 청렴성 손상 심각”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 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으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금융사 직원인 A 씨 등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법) 제5조 제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재판관 4대 5 의견,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한 부분은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됐다. 금융사 등 임직원

이 직무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형사 처벌 하도록 규정한 특정법 제5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금융사에서 근무하던 중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은 “금품 등을 수수하기만 하면 부정청탁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법정형도 지나치게 높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준수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명시적으로 부정청탁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금품이 오고 가거나 이를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청렴성이 심각하게 손상되고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다”며

“장차 실제 부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시장 질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금융사 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라고 짚었다.

헌재는 “금품 등 수수로 인한 금융 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가중 처벌의 기준으로 1억 원을 결정한 것이 지나치고 고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율러 “벌금병과조항은 범죄 수익의 박탈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입을 수 있다는 경고를 통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정수현 기자 int1000@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4월호 발매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y Life
Monthly Magazine
2020. 04 Vol. 04
소설가 김홍일의 특별 기고
“모두가 스승, 모든 것에 감사하라”
현실적 낙관주의자, 소설가 김홍일
“볼타 및” 시니어의 코어인 연인
운동 후에도 고장수입 올리는 법

살마 있는 한 힘쓰는 계속...
Ageless

COVERSTORY 에이지리스를 정의하다

PART1. Activity - 액티브 시니어, 스타트 액티비티
PART2. Group - 젊은 감성 'Great Grey'가 모인다
PART3. Elegance - 젊은 세대 넘어선 '럭셔리' 완성
PART4. Love - 여전히 매력적인 당신, 사랑 나누기 좋은 때
PART5. Earning - 몸은 늙었지만 투자는 '정순'
PART6. Spending - 젊은 취향의 시니어, 소비 트렌드를 이끌다
PART7. Study - 배움이 있는 한 젊음은 '현재진행형'

더불어 숨
오솔길 하나 마음에
들어놓고 싶지

고수열전
나 홀로 항해로 망망대해를 노닐다

그의 집은 바다에 있다. 바다 위에 집을 짓고 산다는 얘기가 아니다. 꿈과 정신의 집, 그걸 바다에 두고 산다. 다시 말해 바다에 출몰 사냥이다. 요트를 타고 대양을 누비는 모험에 심취해 달리 남은 욕망이 없다. 이렇게 물입이 깊어지자 즐거움이 커졌다. 즐거움이 커 물입이 깊어졌을 수도 있었다. 여허는 단 한 번 주어진 생을 으쌰으쌰 즐기는 쪽으로 물어가는 사람의 정경엔 노련한 인생 항해술이 비친다. 독심과 낭만으로 반죽된 고무의 기쁨이 서려 있다.

신라시가 만난 사람들

인제나 그 자리에서
공정과 감사를 말하다
'상글방글소' 진행자
김혜영

모두가 스승,
모든 것에 감사하여 싶지
소설가 김홍일의
회두와 깨달음

해치를 통해 본 세상, 해치가
바글 수 있는 세상을 말하다
국내 최고
해치 조각 작가 최진호

Living & Home 집 안으로 스민 산뜻한 자연, 보태니컬 리빙 아카데미

가자마자 꽃이 피고 초록빛 생기가 가득한 4월이다. 봄기운 미금은 자연에 풍덩 빠져들고 싶지만 마음처럼 나설 수 없는 요즘. 산뜻한 보태니컬 패턴이 가미된 리빙 아이템으로 아쉬움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

생생 부동산 현장 황금노선 품은 황금도시 밀가

서울시 송파구 청자동, 경기도 성남시 청곡동, 하남시 학암동이 맞닿은 위례신도시 부동산(사)장이 다시 몸을 대고 있다. 그동안 정체됐던 개발 호재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려 신도시가 품은 호재와, 실제 투자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시니어 밥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싱그러운 봄날,
시금치의 화려한 변신

투자 고수와 놀자
최저산 신한은행 미래실계센터 수석팀장
은퇴 후에도
고정수입 올리는 법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 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개인사업자, 늘어난 세금 부담되면 법인 전환 고민을

생활 속 세금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이슬기(가명) 씨는 사업 규모가 점차 커지자, 소득세에 대한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이 씨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세금 부담은 어느 정도 줄어들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자세히 알아봤다.

사업 규모 커지면 법인이 유리 근로·배당소득세 등 따져봐야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전환도 고민해 봐야 = 이 씨의 경우처럼 개인으로 사업을 하다가 사업 규모가 커지게 되면 많은 사업자가 대외 신용도와 금융, 세제 측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게 된다.

우선, 세금 측면에서 볼 때 소규모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인이 유리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42%까지 7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는 반면 법인세 세율은 10%에서 25%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단순히 법인세만을 예를 든다면, 과세표준이 1000만 원이라면 개인은 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이 유리하다. 또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라면 개인은 2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0%의 세율이 적용돼 법인이 유리하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을 단순히 세율로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외에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도 함께 검토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 규모가 커져 법인 전환을 고려할 때는 법인설립절차 및 비용에서부터 자금조달과 이익의 분배, 복식부기의 의무 이행 등 세법 적용상의 차이 등 여러 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현금영수증, 받은 만큼 세금 ↓ =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용, 직불카드 사용금액뿐만 아니라 현금을 사용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가 마트 등에서 물건을 구매 또는 음식점에서 식대를 지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정산 시 신용, 직불카드 사용금액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만일,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금거래 확인 신고를 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근로자가 별도의 노력 없이도 손쉽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거래 확인 신고' 현금영수증 효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받아

이 밖에도 소득공제 신청방법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연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확인 후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사용명세는 홈택스(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에서 원하는 조회 기간을 설정하여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회원가입 시 휴대폰 번호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홈택스(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에서 변경, 등록해야 현금영수증 금액이 합산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환급비율

신용카드 사용금액	결제 수단	비고
최저사용금액 미달	신용카드 유리	신용카드 부과서비스 혜택 고려 필요
최대공제한도액 초과		
최저사용금액~최대공제한도액	체크카드 유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고려 필요

중복공제 대상

구분	특별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공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추가공제 대상 및 공제율

추가공제 대상	소득공제율
대중교통 요금	40%
전통시장 이용액	40%
도시·공연비 등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자)	30%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국세 3회 이상 체납땜 사업정지·각종 금융 제재

장운길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봉남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숨이 짝 막힌다. 가산세가 무서워 신고는 했지만, 불경기 탓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김씨처럼 세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까. 세무법인 길 장운길 대표세무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장 세무사에 따르면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공매의뢰한다. 이후 매각이 완료되면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

당하고 있다.

또 행정규제로는 허가사업의 제한과 출국금지 그리고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이 있다.

우선, 장 세무사는 “허가나 인가, 면허를 받아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세무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 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도 빼 놓을 수 없다.

장 세무사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와

1년에 3회 이상 체납과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2.5의 율, 즉 연간 9.125%의 가산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또 가산금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와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까지 1만분의 2.5의 율을 적용한다.

박영사
신간도서



신A5판 / 280P
정가 14,000원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관계지향적 영업

영업성공을 위한 고(高)성과 노하우 터득하기

“영업직에 막 입문하는 사람들과 현직에 있는 영업사원, 더 나은 실적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의 영업 관리자 분, 그리고 영업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

저자약력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곽민순
한국세일즈연구원 원장
(주)이음웬스앤케어 대표이사
진) 김정문알로에 대표

www.pybook.co.kr 박영사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Par5 3Shot 합산

+100_{yd} 더 나간다

1st Shot +30~50yd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2nd Shot +30~40yd
세계 최초의 초고반발 우드

3rd Shot +30~40yd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205g~ 44%더 가벼운
세계 최경량 기술

최적화 기술 적용

BIG BANG Light

모든 업체가 뱅골프의 고반발 기술을 따라하고 경량화 기술을 쫓아오지만 이미 뱅골프는 제3의 신기술 - 최적화 기술로 골프를 쉽고 편하게 하고 있다

PGA 톱 프로처럼 클럽을 만들어 준다면 나도 프로선수 처럼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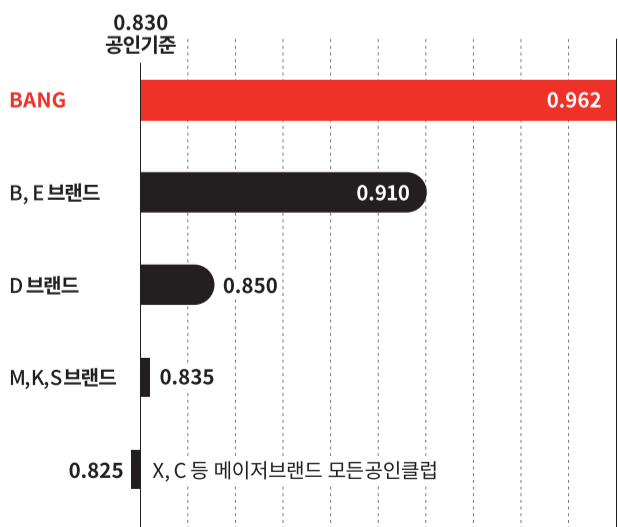
프로 골퍼가 잘 치는 것은 뛰어난 스윙 기술과 최적화된 골프채 덕분입니다. PGA 톱 프로는 첨단 스윙분석을 거쳐 그 프로에게 최적화된 수십 개의 클럽을 만든 후 그중에서 가장 감이 좋은 것을 골라 씁니다.

스윙기술이 부족해도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이 있는 뱅골프 클럽으로 PGA 프로처럼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골프채를 만들어준다면 나도 **+30yd** 더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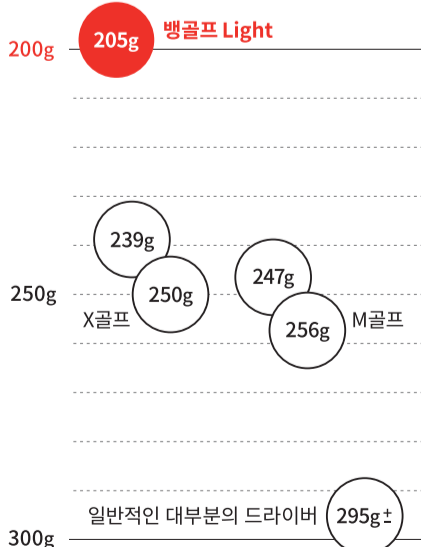
VVIP 고객님의 프로선수와 같은 관리 시스템으로 최적화 기술 적용 및 사용 후 수정 최적화

品格

고반발 기술 격차



경량화 기술 격차



최적화 기술 수준 격차

	BANG Light	타사
드라이버 사양 종류	999,000가지	획일적인 몇가지
드라이버 무게 종류	205g ~ 325g까지 120가지	단일 무게 혹은 몇가지
드라이버 강도 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SR, R, L 등 몇가지
우드/아이언 강도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R 두가지 안팎
아이언무게 (9번 기준)	남 333g 여 312g	남 351g ~ 395g 여 326g ~ 368g
아이언 샤프트 종류	0.335 inch 최초 2~11번까지 번호별 샤프트	대부분 한가지 길이를 번호별로 잘라서 사용
헤드 무게 조정	120가지 헤드 무게로 헤드 교환 납을 사용하지 않음	납을 첨가하여 무게조정
드라이버 100yd 골퍼	스윙웨이트가 A8까지 있어서 누구나 딱 맞는 가벼운 클럽이 있다	무거워서 치기 불편하다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지금
IBK기업은행이 함께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같이 풀어나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반드시 잘 극복하리란 믿음으로
오늘의 모두를 응원합니다



“IBK 전국 영업점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이용하세요”

코로나19 피해 맞춤형 금융지원

-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출(해내리대출I)
-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이자 상환 유예
-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수출환어음 입금지연이자 감면